

중국, 4월부터 온라인 유제품 판매 금지 발표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온라인 상에 유제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산업상업성은 온라인상에 상품판매는 여러 경로의 상품 유통과 포장과정을 거치면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할 수 있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유제품 판매금지는 지난 '08년 있었던 중국산 분유 멜라민 파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대형매장에서 판매되는 무포장 식품에 대한 면허조치 시행 등도 포함되었는데 관계자들은 식품 공급자들에 대한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온라인 유제품 구매자는 그동안 구매제품에 불만이 없어 판매 금지보다는 감독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30년만의 가뭄으로 우유생산량 감소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30년만의 가뭄으로 우유 생산량이 감소되고 가격이 오를수 있다고 호주 은행 전문가가 발표하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유 고품종 생산량이 1년전에 11%정도 증가된 16억 킬로그램 생산된 이후 현재는 정체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였다.

이같은 전망은 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40%를 담당하는 폰테라사도 우려하는 상황으로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북섬 전역을 가뭄지역으로 선포하며 이같은 가뭄이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실시된 전지분유 국제 경매가격은 2010년이후 가격 큰 폭인 36%정도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월 공급분 분유는 '10년 9월 이후 최대인 19.3%가 인상되었으며 단기 거래분은 현재 톤당 4천343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난해 뉴질랜드 국가 전체의 유제품 수출량은 94억 달러

로 국가 전체 상품 수출액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서 신선도 유지하는 새 우유병 개발

낙농 선진국 뉴질랜드에서 우유를 빛으로부터 보호 해주면서 맛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새로운 우유병이 개발됐다. 이 우유병을 개발한 뉴질랜드 낙농회사 폰테라는 새 병은 이런 종류의 우유병으로는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폰테라의 피터 맥클루어 제품 담당 이사는 지난 3월 21일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병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지난 3년 동안 연구해 개발한 삼중 병 기술은 신선한 우유와 크림 등을 담은 포장 용기로 처음 사용되는 것으로 낙농산업에 일대 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 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폰테라가 지금까지 이룩한 혁신 중 가장 큰 혁신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빛을 100% 차단하는 이 병은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의 삼중 구조로 돼 있으며 기존의 플라스틱병과 같은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졌다. 맛과 신선도는 소비자자들이 우유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다. 폰테라는 연구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던 우유들이 대부분 폐기 처분 날짜 직전까지 아주 신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폰테라 마케팅 매니저 크레이그 어윈은 연구에서 사람들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해서 버린 우유는 7%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테트라 용기나 하얀색 투명 병은 빛의 7~25% 정도가 통과한다며 우유는 빛에 노출되는 순간 상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차이는 햇빛에 노출되고 나서 6분, 형광 빛에 노출되고 나서 2시간 뒤 우유를 검사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맥클루어 이사는 "빛에 의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일단 시작되면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이번에 개발한 삼중 병은 바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강조했다. 또 뉴질랜드 우유 생산업체인 앵커 우유의 올라프 반 다알렌 혁신담당 이사는 “새 병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반응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우유의 신선도가 판매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병에 담긴 우유가 유통기한인 15일 동안 매장 선반에 놓여 있어도 출고 첫날처럼 좋은 맛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병을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지금보다 더 들어가지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어린 송아지 1일 2회 대용유 급여 의무화

영국과 유럽연합 내 4주령 미만 송아지는 동물복지 관련 법에 따라 1일 2회 대용유를 급여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가 편의를 위해 1일 1회 급여를 선전하는 대용유 회사들의 선전과는 달리 송아지의 빠른 생육을 위해서는 1일 2회 급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되었다.

이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송아지는 태어날 때는 반추위 기능을 못하는 단위 상태로 태어나 위내 조직의 빠른 발달을 위해서는 대용유를 자주 급여하는 것이 반추위 조직을 성장시켜 마른 사료에 빨리 적응 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일시에 많은 양의 액상 대용유 급여가 주름위의 정체를 일으키거나 다른위로 역류를 시켜 급속한 발효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유는 소량으로 자주 급여하는 것이 소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율을 높이며 송아지를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권장되었다. 또한 대용유의 성분도 중요한데 최소 65% 이상이 우유성분이고 대두성분이 최소화된 것이 좋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터키, 최대 유업체 해외 이스라엘 유가공장 인수

터키 최대 유업체인 수타스 사가 루마니아의 이스라엘이 운영하던 유가공장을 인수하여 재가동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라엘 대표 유업체인 트느바사가 지난 '05년 인수하여 운영하던 이 유가공장은 루마니아내 수입 유제품과의 2배이상 비싼 생산비로 경영난을 겪어오다 지나해 파산신고를 한바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 유업체는 이 유가공장에 6천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나 '10년 기준 매출액은 1천7백만 유로에 적자 1천7백만 유로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 유업체는 젖소 목장을 1백만 유로에 매입하여 현대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역시 손실을 기록하여 '11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간 5억유로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수타스사는 이번 인수 외에 최근 1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중전에 스웨덴에서 운영하던 유가공장을 인수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마케도니아 유가공장을 인수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